

上海·江蘇·浙江지역 박물관의 도자

장 남 원*

... 가을, 바람 서리 끝에 越 가마가 열리면
千 봉우리의 푸른을 모두 빼앗아 온다네...
陸龜夢, <越器詩>

중국의 南東지역은 지금도 그렇듯 과거에도 문화와 경제의 요지였다. 도도한 長江과 그 지류들이 만들어 낸 비옥한 땅, 하늘이 내린 溫暖多濕한 기후는 넉넉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각박하지 않은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8,000여년 전, 이 곳 사람들은 흙으로 자신들이 사용할 그릇이나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직도 지구상에 흙으로 그릇을 만들 줄 모르는 종족이 살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분명 先覺이다. 그 후로 오래동안 자연적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문화는 이어지고 있으니, 越州窯·龍泉窯·南宋官窯·景德鎮窯 등은 唐代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뿐만아니라 중국도자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가마들인 것이다.

그 가운데 이번 답사에서는 上海·江蘇·浙江지역의 일부 박물관과 가마터를 돌아 보았으므로 그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적는다.

上海博物館에 도착한 것은 1999년 12월 13일. 天圓地方的 개념을 조형으로 형상화한 새 건물로 이전한 後로는 처음이다. 1952년 설립된 이래 중국 동부의 중심박물관으로 그 규모와 전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해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술품 소장품 총 12만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도자류만 20,000여 점이며 우리나라 도자기도 10여 점 있다.¹⁾ 도착과 함께 上海博物館陶瓷研究部 副主任이자 中國古陶瓷研究會 理事이고 上海市文物鑑定委員會委員으로 있는 陸明華선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자사가 전공인 陸선생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중국도자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江西省 萬年 仙人洞 출토의 8,000년전 도기 및 浙江省 河姆渡 출토의 7,000년전 도기, 半坡·馬家窯·半山·馬廠型의 彩陶, 上海 青浦縣 崧澤 古代文化遺跡 출토 도기, 商代 青釉陶器를 비롯하여 魏晉시대 靑瓷와 도자제작 기술의 발전, 원시자기의 출현과 東南지역 청자 계통이 한눈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陶瓷史.

1) 上海博物館 소장 한국도자에 관해서는 陸明華, 『上海博物館所藏高麗瓷』, 『文物』, 1988년 6期, pp.80-85 참조.

에 펼쳐지며 唐三彩, 長沙窯의 彩繪瓷器 등 隋·唐代자기와 宋代의 五大名窯인 汝, 定, 官, 哥, 鈞窯 등 북송·남송 도자제작 기술의 발전을 짚어 나갔다. 아울러 元·明·淸 景德鎮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와 기타 다른 지역 도자의 발전과정도 볼 수 있었는데, 명품들 사이사이에는 각지에서 수집된 陶片들과 출토 도자기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어 매우 교육적이었다.

이튿날(12월 14일)은 杭州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항주시내의 南宋官窯遺址와 南宋官窯博物館을 찾았다. 이 가운데 특히 郊壇下官窯遺址에는 가마와 작업장 등 발굴결과 노출된 유구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박물관에는 월주요, 남송관요, 용천요 등 주로 중국 동부지역 주요 가마의 도자 변천사가 전시되었고, 특히 남송대 郊壇下官窯의 파편 및 요도구 등 출토품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2세기 절정을 구가하던 남송관요 자기는 송대 이래로 倣製가 이루어져 1980년대까지도 계속될 만큼 이름났었다. 그러나 옛 관요터 인근 한편으로 현대식 瓷廠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山처럼 積載된 화장실용 세면기들을 보고는 잠시 아득해졌다. 하지만 저들의 현실적인 自求 노력이 놀라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천후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은 결국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힘이 되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후 일정은 浙江省博物館 방문이었다. 西湖가 뜰 앞으로 펼쳐진 절강성박물관은 192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절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별도로 마련된 청자관에서는 절강성내 월주요·용천요 도자의 역사를 살필 수 있었는데 제작연대가 있는 청자들 가운데 光啓三年(877)銘의 罐形 靑瓷墓誌도 눈에 띄었다.<사진 1> 그 외에도 圖錄에서 보던 유물들을 실견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일정상 월주요 가마터를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전시된 청자들을 보는 것으로 못한 일이었지만 浙江을 다시 찾게 된 감회였는지 “...가을, 바람 서리 끝에 越 가마가 열리면 千 봉우리의 翠色을 모두 빼앗아 온다네...(九秋風露越窯開, 奪得千峰翠色來)”라는 陸龜夢의 越器詩 구절이 실감나게 떠올랐다. 한편, 청자에 관한 새로운 도록과 논문집 등이 출간되어 있어 절강성박물관이 이 지역 도자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저녁, 숙소인 杭州大廈에서는 朱伯謙 선생의 南宋郊壇下官窯 특강이 있었다. 朱 선생은 남송관요는 물론 특히 용천청자와 월주요청자 등을 평생 연구한 중국 도자사학계의 원로 학자이다. 내용은 오전에 우리가 항주시내에서 보았던 교단관요 발견 경위와 조형적 특징, 제작 기법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단관요에서 채집된 도편들을 실제로 만져보면서 질문과 토론을 가졌다.²⁾ 계속되는 강행군에 피로했지만 칠순을 넘긴 老學者의 힘찬 목소리는 긴장감을 주었다.

셋째날인 12월 15일은 寧波로 갈 참이었다. 절강성 杭州灣의 남부연안 동쪽 끝에 위치한

2) 朱 선생의 발표내용은 本誌의「南宋郊壇下官窯簡介」원문과 함께 필자의 역주 참조.

寧波. 이미 唐代에 日本의 遣唐使들이 이르렀던 곳. 1123년 북송 황제 徽宗의 國信使 일행이 고려를 향해 출항했던 곳. 당시에는 그곳을 明州라 불렀다. 그러나 명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만 이미 항주에서부터 10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는 고속도로와 모든 도로를 포위하고 말았다. 일정은 늦어질대로 늦어지고 우리는 영파에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결국, 강행!! 다행이 안개가 걷히고 紹興, 上虞를 지나 정오가 지나 영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내 중심을 지나면서 방송국인 듯 보이는 건물의 송신탑 사이로 安東에서나 볼 수 있었던 塼塔이 힐끗 지나쳐 갔다. 처음 들른 天一閣 전시관에서는 특히 寧波·上虞일대 문화발달사, 인접한 上虞의 河母渡文化 도기부터 월주요 청자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영파 출토의 高麗時代 牧丹文象嵌靑瓷片은 우리와의 지리적 친밀감을 다시 느끼게 해 주었다<사진 2>. 머지않아 우리 서해안에서 영파까지 船便의 直航이 생길 것이라고 하니 새삼스럽다. 영파로 오는 동안 각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벽돌·기와 등을 조달하기 위한 대규모 登窯가 많았는데 때로 饅頭窯도 눈에 띄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항주로 돌아가는 길에 절강성 박물관측의 배려로 평상시 잘 공개되지 않았던 삼국시대(A.D.3C) 가마터 한 곳을 볼 수 있었다. 바로 上虞縣의 鞍山窯址³⁾로 1976년에 발견된 후 발굴을 거쳐 1987년에 보호각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었다. 가마 총 길이는 13.2m, 아궁이는 반원형이며 가마 앞 부분은 약간 파손되었으나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경사진 단칸형식으로 폭은 2.1~2.4m인데 앞쪽이 넓고 뒷쪽으로 갈수록 점차로 좁아진다. 경사도는 앞부분이 13°, 뒷부분이 23°로 漢代 가마와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⁴⁾ 가마의 바닥면은 生土 위에 모래를 깔아 사용했다. 가마벽은 점토로 높이 30~37cm 다진 후 그 위에 점토 벽돌을 쌓아 올려 축조하였다. 가마바닥의 끝부분에는 높이 10cm가량의 낮은 흙담을 쌓았다. 그 뒷편에는 아마도 가마에 불을 댈 때 가마내 불길의 속도를 입시로 조절해 주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불기둥이 있었다. 가마 끝부분은 가마벽을 아랫쪽으로 쌓아 연기가 빠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낮은 벽과 점토 덩어리를 사용하여 불길을 저지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점은 이 지역 漢·晉시대 등요와의 큰 차이점이다. 가마안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요도구는 대부분이 가마의 중간부분에 밀집되고 있었다.<사진 3>

蘇州 美人을 아내로 맞아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生의 가장 큰 행복이라 했던가. 나흘째 되는 날(12월 16일)은 소주를 돌아보았다. 舊 市街는 ‘흰 벽에 검은기와’로 마치 낡은 흑백사진 같았다. 중국 4대 園林의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拙政園과

3) 朱伯謙, 『我國古代龍窯的試論』, 『朱伯謙論文集』, 紫禁城出版社, 1990, pp.105-106.

4) 예를들어 안산요지와 인접해 있는 帳子山의 漢代 靑瓷·黑釉 가마의 경우 가마 앞부분의 경사도가 28°, 뒷부분의 경사도가 21°로 앞부분이 가파르고 뒷부분이 다소 완만하다. 朱伯謙, 앞 책, p.104 참조.

虎丘山을 둘러보며 언젠가 燕巖이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벽돌 사용을 이야기한 대목이 떠올랐다. 이들에게 벽돌과 기와는 도시와 그 안의 건축을 구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재료인 것 같다. 塔도 壁도 지붕도 그리고 바닥도 ‘흙’으로 만들어 구운 벽돌·기와이다. 졸정원의 한 쪽에는 수백년 된 분재들을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의 花盆은 거의 모두 붉은 흙으로 만든 ‘宜興紫砂’였다. 蘇州에서 太湖를 가로지르면 바로 ‘宜興’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茶具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의흥자사로 만든 찻 주전자이다. 흙이 곱고 부드러워 유약을 입히지 않고 굽는데 차의 향이 주전자의 몸체를 통해서 배어 나온다. 숨을 쉬는 것이다. 한편, 졸정원 실내에서는 明清代이후 상류층의 室內 陶器陳設 例를 볼 수 있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 宜興, 景德鎮 등지의 도자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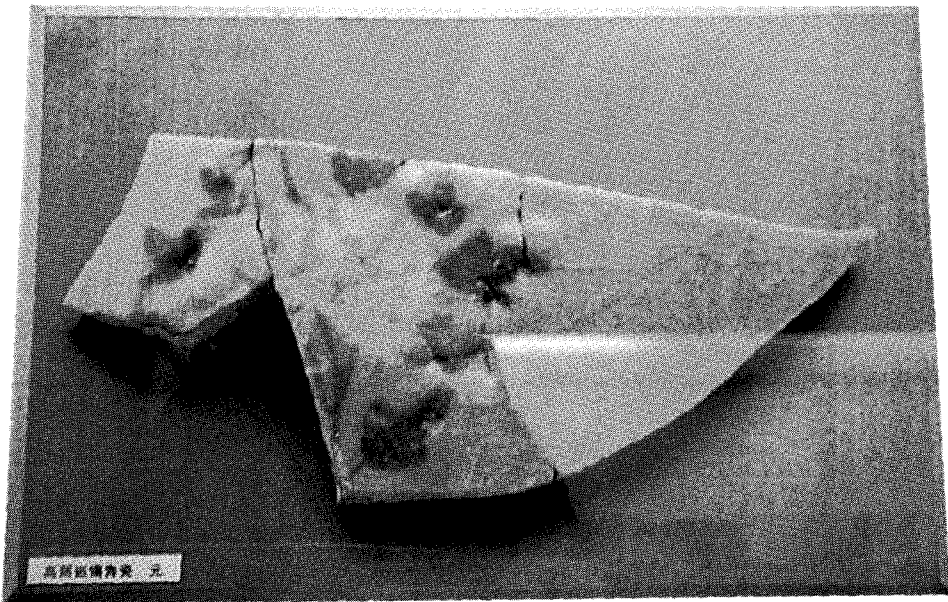
저녁 늦은 시각 南京에 도착한 우리는 거의 자정이 되도록 숙소에서 작년 北京 답사때부터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南開大學의 劉毅 교수와 중국 唐·宋代 茶碗에 대해 토론을 했다. 유교수가 가져온 建窯·吉州窯 天目과 越州·邢州 瓷片들을 보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문화 및 도자기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는 피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닷새째 되는날(12월 17일), 南京博物院을 들렀다. 北京의 故宮博物院에 이은 중국의 두번째 박물관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보다는 중국문화 전반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하고 있었다. 1933년에 개원한 이래 中日戰爭과 國共合作 등 전란을 겪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현재 380,000여점의 소장품과 최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신관을 개관하였다. 중국 도기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도기 전시실이 따로 있었고 隋唐 이래 明清에 이르는 명품 자기류 전시는 압도적이었다. 전시 설치도 매우 현대적이었다. 특히,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에 가마와 작업장을 실물 크기에 가까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기억에 남는다.<사진 4> 한편, 다른 소장품에 비해 도자 소장품들은 장르별로 별도의 도록을 만들어놓고 있어서 많은 소장품 가운데 도자에 주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인접 지역과 박물관을 돌면서 ‘陶器’라는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가까운 중국이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도 학술적인 교류를 통한 실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특히 陶器 연구에 있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은 필수라는 생각이 절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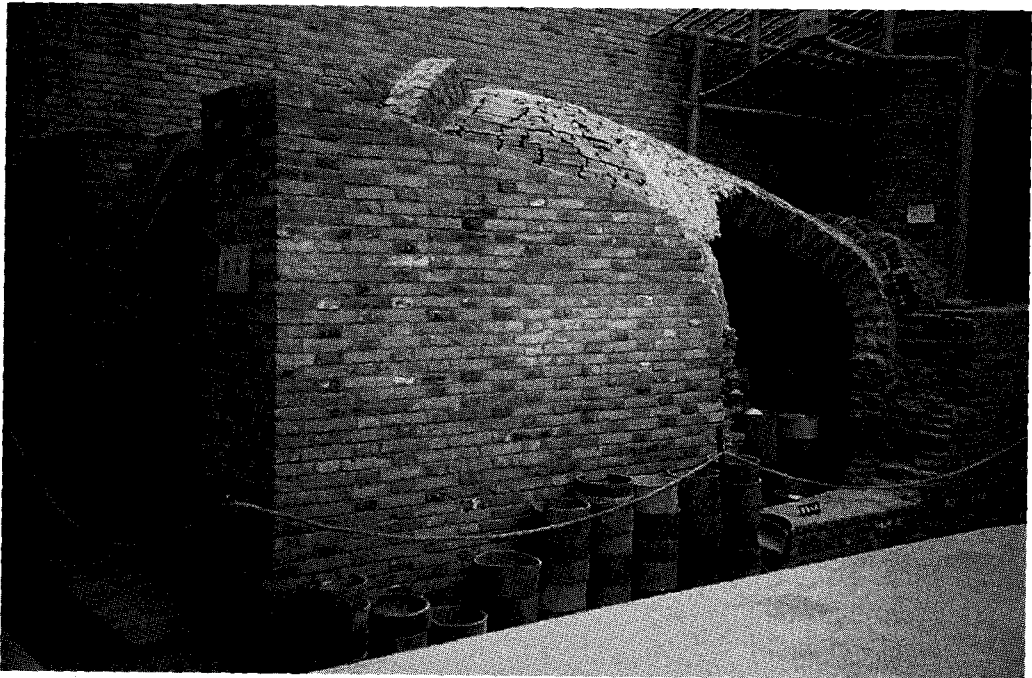
<사진 1> 靑瓷光啓三年(877)銘罐形墓誌, 浙江省博物館所藏



<사진 2> 靑瓷象嵌牧丹文片, 高麗, 寧波 天一閣



<사진 3> 上虞縣 鞍山窯址 가마 중단부분 요도구 노출상태



<사진 4> 南京博物院內 가마모형